

# 주유소 기름값 오늘부터 공개

### 인터넷 통해 ... 석유제품 가격 인하 경쟁 유도

### 보고 명령 끝까지 거부면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가격인하 압력을 높이기 위한 첫번째 조치인 전국 주유소의 유통제품가격 인터넷 공개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지식경제부는 14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등 유통제품가격 등이 담긴 인터넷 사이트 '주유소 종합정보 제공시스템'(www.opinet.co.kr)이 15일 오전 9시부터 가동된다고 밝혔다.

시스템 개통의 목적은 소비자들에게 값싼 유통제품 가격정보를 널리 알려 주유소간 제품가격 인하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4월 둘째주(4.7~11) 서울지역 주유소에서는 휘발유의 경우 최고가격이 1.1천825원인 반면, 최저가는 1천629원으로 196원의 차이가 났고 경유는 최고가가 1천729원, 최저가는 1천

517원으로 212원의 격차를 보였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가격정보의 수집은 금융 부가가치통신망과 같은 전자적 방식을 통해 이뤄지거나 전자적 방식이 어려울 때는 전화 모니터링 등도 사용된다.

이 사이트는 단순한 가격정보 외에 지도정보 서비스와 결합해 시·군·구별로 최고·최저가격 주유소와 평균가격정보, 출퇴근 구간이나 고속도로, 국도와 같은 이동구간별 주유소 판매가격 정보와 같은 가공정보도 제공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주유소들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지경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주유소에 가

격되고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참여를 거부하는 주유소에는 당분간 실적작업을 벌여나가되 끝내 거부할 때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보고 명령 거부시에는 현행 법령 규정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경부는 아울러 현재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중인 유사석유판매 업소 공표제도와 유사석유 취급업소를 신고하는 소비자 신고센터도 모두 이 사이트를 통해 운영할 예정이며 정보제공 매체도 추후 인터넷 사이트 외에 모바일 기기도 확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증권사 올해 3천명 이상 뽑는다

### 현대 250명·삼성 450명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올해 인력채용 규모가 3천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삼성증권·현대증권·대우증권 등 국내 10개 증권사들은 2008년 신입사원 1천844명, 경력직 1천230명 등 3천명 이상을 채용키로 하고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증권은 9~10월에 예년과 비슷한 규모인 업무직 50~100명, 대졸신입 150명 등 200~25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삼성증권은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작년 규모 이상의 신입,경력직을 선발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 회사는 작년 신입직원 300명, 경력직 150명을 채용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상반기 대졸신입사원 50명

가량을 선발키로 했으며 하반기에는 작년 수준인 약 100명을 추가 채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신한증권은 하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할 계획이지만 정확한 규모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 회사는 작년 영업전문인력 40명을 포함해 100명을 채용, 올해도 비슷한 수준에서 인력충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은 작년 신규채용 450명, 경력직 650명 등 무려 1천100명을 선발한 데 이어 올해도 4월과 9월 정기 공채와 인턴사원 채용, 경력 채용 등을 통해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든 수준의 인력채용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증권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007년 1월 이후 졸업자나 올해 8월 졸업 예정자 80명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모집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 영세 자영업자 269명 특례보증

### 광주시·신보재단, 자금지원·재래시장 활성화

광주시는 광주신보보증재단과 함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269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해준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자금 융통을 위해 자금 지원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유도키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달 25일 발표한 '뉴 스타트 2008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시는 종업원 수 10명 미만의 소기업과 종업원 수 5명 미만의 소상공인 가운데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개월이 지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5년까지 보증해 줄 방침이다.

이 가운데 제조·건설·운송·광업 분야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각각 종업원 수 50명과 10명 미만으로 대상 폭이 더 넓다. 다만 부동산업, 주점업, 골프장, 무도장, 귀금속 등 일부 업종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용 업체는 제외된다.

시는 특히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손실보전부담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이고, 현재 15%까지 부담하는 일반 금융기관의 책임분담비율을 안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금융기관 연체 여부, 신용불량정보 등 필수 사항만 심사 조항에 넣어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자금 지원의 상승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에 잠혀 있던 소상공인 지원정책자금도 상반기로 앞당겨 집행하고 부족분은 하반기에 추가 조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업체들에 평균 800만원씩 특례보증할 경우 관내 3천360곳 가량의 영세 소상공인이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진 상황을 지켜본 뒤 접수 창구를 5개 구청 및 3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기자 penfoot@kwangju.co.kr



휴대전화 '듀크' 출시 스카이는 전면에 광택소재를 사용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한 HSDPA 휴대전화 '듀크(IM-S330, IM-S330K)'를 14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블루투스용 웹-커머스를 지원하고 2.4인치 QVGA LCD, 130만 화소 카메라, MP3 플레이어 등 기능을 갖췄다. /연합뉴스

# 뉴욕발 급락 ... 코스피 33P 하락

뉴욕발 악재로 인해 국내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주식시장이 일제히 악세를 나타냈다.

14일 코스피지수는 지난 주말 뉴욕증시 급락 등의 영향으로 전 거래일보다 33포인트(1.85%) 하락한 1,746.71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제너럴일렉트릭(GE)의 실적 악화로 뉴욕증시가 이날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에 32.83포인트(1.84%) 내린 1,746.88로 출발한 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낙폭이 확대됐다.

코스닥지수도 지난 주말보다 10.84포인트(1.66%) 내린 641.03으로 마감하면서 640대로 내려앉았다. 특히 이날 코스닥시장에서는 오전 9시6분께 선물가격 급락으로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되는 사이드카 조치가 취해졌다. 울 들어 코스닥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1월22일 이후 두 번째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경기부양' 추경 편성 재정부, 타당성 검토

### 성장률 오르지않아 물가 불안 우려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에 더 들어온 세금을 내수 촉진에 쓰겠다고 밝힘에 따라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추가결정에 찬성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엔 중앙정부가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15조3천억원이며 지방교부세 정산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면 4조8천억원의 여유가 생긴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예상되는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으나 다른 쪽에서는 추경편성이 물가불안을 일으키고 경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등 찬반이 엇갈렸다.

◇ 재정지출 3조원 늘면 성장률 0.2% 상승 =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세계잉여금 4조8천억원 중에서 3조원을 재정지출에 쓴다면 세입세출 모형을 재정지출 연관성이 0.49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0.2%의 해당한다.

이는 단순히 재정지출로 인한 1년간의 효과로, 부차적 효과와 누적되는 효과를 감안한다면 성장률 0.2% 포인트 상승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 추경편성 법적으로 가능하나 = 현행법으로는 경기진작을 위한 추경편성이 쉽지는 않다. 지난 2006년 9월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의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법률은 추경편성 조건으로 ▲선정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내외의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라고 명시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예산이 편성된다면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물가에 추가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연합뉴스

# "그린벨트 추가 해제 없다"

### 국토부, 정치권 등 기대감 확산 진화 나서

새 정부의 규제완화 바람과 정치권의 잇따른 약속으로 인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미 계획된 물량외에 추가 해제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다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어 해제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4일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에 이전하거나 그린벨트를 선별적으로 추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총선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들이 당선된 이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과반의석을 넘은 한나라당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며 선별적으로 해제될 수 있다는 일

부 보도가 나오자 긴급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2020년까지 해제계획이 세워져 있으며 이 외에 추가 해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에 해제권을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부터 지정하기 시작해 1977년까지 5천397km를 지정했으며 2000년 시화 및 창원산업단지 11km 해제를 시작으로 작년까지 총 1천435km가 해제되고 3천962km가 남아 있다.

해제된 지역은 그린벨트 5등급 분류 중 4-5등급에 해당돼 상대적으로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이나 지정목적이 달성된 지역 등이 대부분이었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추가 해제 예정 물량 142km에 대해서는 해제하겠지만 나머지 3천820km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방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정운천 농수산 "쇠고기, 정상회담전 실무 협의"

### "李대통령 방미 선물 아니다"

### 농민단체선 협상 중단 촉구

정운천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쇠고기 문제가 양국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14일 오후 남호정 한우 협회장 등 축산·농민단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협상은 대통령 방미 선물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게(선물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국가간 현안이 있으면 국가 영수들이 토론할 수 있고,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남 회장과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 등은 사전 약속없이 과천 청사 농식품

부를 방문, 장관을 면담하고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한미 쇠고기 협의에 대해 협의했다.

이들은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에만 정신을 쏟아도 힘든 이 시점에 굳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쇠고기 협상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하며 "오늘(14일)로서 협상을 중단하라"고 정 장관에게 요구했다.

남 회장은 "다른 것을 얻기 위해 축산업을 포기하는 정부의 행태를 참을 수 없다"며 "더구나 일본 등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재계 움직임이 없는 데 우리만 앞장서 미국산 쇠고기를 개발하려는 것은 정치적 이유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수산물부는 14일 과천 청사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관한 양국 고위급 전문가간 협의를 진행했다.

11일 첫날 협상에서 미국측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새로운 위생조건 문안을 제출했고, 우리측은 지난 주말에 미측 제안을 검토하고 비공식적 접촉을 통해 의견도 교환했다.

미국측은 제시한 위생조건에서 "OIE 지침에 맞춰 연령·부위 제한을 없애달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미국의 동물사료 금지조치와 이력추적제가 미흡하다는 점을 근거로 연령제한을 가능한 유지하고 최대한 많은 종류의 광우병 위험물질(SRM)을 받지 않는데 협상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노인 요양보험 신청하세요"

**복지부 오늘부터 접수** 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노인이 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의 혜택을 보고자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장기요양신청대상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인 치매나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이웃·사회복지전문인력 등이 대신해서 전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IAE 유학네트 광주지사	어학연수 상담 및 관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6	062-233-8171
(주)서림인더스트리(광주지점)	[신앙파크호텔]전기기사/식음료, 경리 아르바이트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6	062-228-8000
(주)코리텍	생산직-cnc선반 및 자동화기계 운용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4/16	011-1703-3221
프리머스에이치알(주)	SK텔레콤 114 상담원 [광주역점]	고졸/경력무관	2000~2200	04/17	062-383-1756
광산기업	경리(문서작성 및 서류정리 기타 등등)사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4/18	062-511-1125
(주)스마트정보	영업기획, 영업관리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4/18	062-350-8500
(주)우리	수행비서 및 BMW/자카용 운전원/경리여사원	고졸/경력5년	2200~2400	04/19	062-361-7106
(주)오에이나라	컴퓨터 사무기기 A/S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2년	1600~1800	04/19	062-224-6073
천지컴	TM 신입, 경력 직원 (경력자 우대)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4/19	062-430-6888
대성애드	각종 광고물제작 및 현수막제작 및 기타 작업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4/21	062-374-1727
햇봄	패션 촬영지 구할(의류쇼핑몰 모델 촬영)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4/21	062-375-5998
한진eng	입출고관리, 사무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4/22	062-955-5079
(주)영신업	생산라인 신입운영 생산조립직 및 프레스기능공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4	062-951-6900
(주)건우건설	건설현장 소장 경력직	초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04/24	062-265-9885

(광주지점코리야 512-6210 제공)

## 기업 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신입 선발 기준 "인·적성 검사 가장 중요"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서류전형 절차에서 신입사원 선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적성검사를 꼽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4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기업 인사담당자 499명에게 서류전형에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매기게 한 결과 인·적성검사가 4.2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출신학교(3.5점), 영어회화 능력(3.3점), 출신학과(3.2점), 인턴 등 업무관련 경험(3.2점) 등의 순이었다.

기업별로 대기업 채용담당자는 인·적성검사(4.1점)→출신학교(3.7점)→학점(3.5점), 출신학과(3.5점), 중·벤처기업은 인·적성검사(4.3점)→출신학과(3.4점)→업무관련 경험(3.3점) 등의 순으로 비중을 두었다. /연합뉴스